



#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 3분 묵상

### 자연

김영문 브루노 신부

누가 보든 안 보든  
피는 것이 꽃이다

누가 있건 없건  
그를 만드는 것이 나무다

누가 돕든 돕든  
부는 것이 바람이다

누가 겹든 희든  
감싸는 것이 눈이다

##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구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12/03/2025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1,415

현재 참가 인원 -92명



## 본당 설립 50주년 기금 모금 현황

<12/7/25>

양대석 엘리야, 김경중 스테파노, 이보현 스텔라, 김추희 세실리아,  
정승범 바오로, 제대회 모금 총액 : \$5,800

## 입당송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이사 35,1-6L.10  
 <하느님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 화답송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제2독서**.....야고 5,7-10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3,1-12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 대림 제2주일 (12/7) | 토요 저녁(7:00) | 주일 아침(8:00) | 교중(10:00) | 청소년(11:30) | 청년(5:30) | 미사 참례자 합계 |
|----------------|-------------|-------------|-----------|------------|----------|-----------|
| 미사 참례자         | 31명         | 64명         | 211명      | 168명       | 41명      | 515명      |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97    예물 준비 성가 : 216, 332    성체 성가 : 180, 156    파견 성가 :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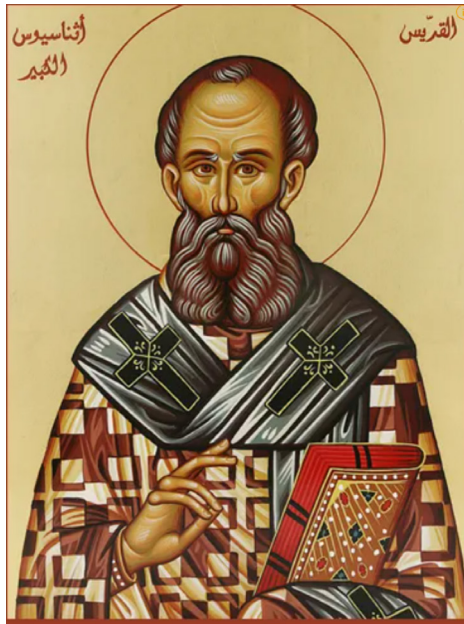


##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해 정통 가톨릭 교리를 수호한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다. 그런데 교회 역사상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훼손하는 이단들이 적지 않았다. 4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주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는 당시 많은 귀족과 주교들의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부터 신의 아들이 아니며 단지 신성을 지닌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라는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훼손했다.

니케아 공의회(325)는 이러한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배척했으나, 아리우스와 그 일파는 콘스탄틴 대제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했고, 콘스탄티누스 2세(337~340) 때에는 전 로마 제국에 횡행할 만큼 그 위력을 떨쳤다. 이러한 아리우스주의자들에 대항해 그리스도교 정통 교리의 수호자로 나선 이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오(Athanasius Alexandrinus, 295?~373)였다.

성인, 교회 학자로, 증거자로서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던 그는 고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주교들 중 한 명이었다. 마치 화강암과도 같이 조금이라도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말 그대로 원칙의 인물이었다. 그는 저항 운동가의 품모로 기억된다. 295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318년경 부제품을 받은 뒤 알렉산드레 주교의 비서가 되었다. 바로 이때 아리우스주의 논쟁이 발생했고, 교회 안에서는 정통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325년 알렉산드레 주교를 수행해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했으나, 당시 그는 부제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의회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와중에도 뒤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안티오키아의 에우스타티오(Eustathius)와 안키라의 마르첼로(Marcellus) 등 아리우스주의를 반대하던 신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328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의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임명의 해이다. 그해 4월 17일 주교가 사망하고 아타나시오가 후임자로 내정되자, 엄격주의자인 멜레티우스 이단자들을 따르던 이들은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좌를 차지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따라 아타나시오를 따르던 이들이 급히 비공식적으로 주교좌에 그를 올림으로써 적지 않은 잡음이 생겨났고, 그를 반대하던 이들은 그를 비합법적인 주교로 간주했다. 하지만 결국 콘스탄틴 대제(306~337)는 아타나시오의 주교 축성을 인정했다. 이때 그의 나이는 서른이었다. 그러나 대제는 이와 함께 자신이 유배지에서 불러온 아리우스(Arius, 256?~336)를 공동체에 받아들일 것을 지시했다. 그렇지만 아타나시오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함으로써 멜레티우스 이단과 아리우스주의자들을 거슬러 자신의 교구를 지켜 나갔다.

아타나시오는 자신의 교구 안에서 니케아 신경이 제시하는 정통 신앙을 뿌리내리고 수호해 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후 끊임없는 고난을 겪게 된다.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이들은 335년 티로에서 교회 회의를 소집해 아타나시오의 해임을 결의했고, 황제는 그를 트리에에 감금했

데, 이것이 그가 일생 동안 겪게 될 다섯 차례 유배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 유배는 339년 4월 16일부터 346년 10월 21일까지였다. 그리고 356년부터 362년까지, 362년부터 363년까지, 또다시 365년부터 366년까지 아타나시오는 끊임없이 유배의 고난을 겪었다. 주교로 지내던 46년 동안 20년을 유배지에서 보냈고, 373년 5월 2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생애 중 많은 저술을 남겼다. 특히 그는 두 번째 유배 생활을 로마에서 지낸 뒤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 세 번째 유배가 시작되던 356년까지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10년 동안을 일러 '황금의 10년'이라고 부른다. 이때 아타나시오는 생애에서 가장 왕성한 저술 및 사목 활동을 펼쳤다. 그의 저술은 대부분 글을 쓸 때 발생한 사건들과 글을 쓰는 목적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 그의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니케아 공의회에 대한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쓰인 것들이었다. 니케아 신경의 요지는 성부와 성자가 그 본성과 본질, 품위에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를 옹호하기 위해 아타나시오가 최초로 쓴 작품이 세 편의 『아리우스파 반박』(Oratioes contra Arianos)이다.

아리우스가 처음에 단죄됐다가 복권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리우스파를 반박하는 변론』(Apologia contra Arianos)과 『아리우스파의 역사』(Historia Arianorum)에 묘사돼 있다. 여기서 아타나시오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을 논박하면서 니케아 신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이집트인 주교 세라피온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나타난다. 아타나시오의 일생은 한마디로 투사의 그것이었다. 부제 시절부터 그는 일종의 호교 작품인 『이교인 반박』(Ratio contra gentes)과 『말씀의 강생론』(Oratio de incarnatione Verbi)을 쓰면서 우상 숭배를 논박했다. 타고난 논쟁가로서 일생을 통해 열정적으로 니케아 공의회에 정통 교리를 수호한 그는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강조함으로써 후대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의 완전한 기틀을 마련했다.

## 공지 사항

### 1 2026년도 본당 달력

2026년도 본당 달력을 가정당 1부씩 가져가시고, 후에 원하시는 분은 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 2 시노드 참가 대상자 설명회

- 일시 : 12/21(주일) 오후 1시
  - 대상 : 시노드 신청자
  - 내용 : 시노드 일정 및 진행에 대한 설명회
  - 장소 : 성전
-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시노드에 참가 신청하신 모든 교우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4 본당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 5 2027 세계 청년대회(WYD)신청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전 세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더욱 깊이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석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참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한하여 최종 신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관심자 신청서 마감일: 2026년 2월 1일
- 신청서 파일 및 기타 문의: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 6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12/21(주일) 오전 8시 미사 후
  - 장소 : 친교실
- 베드로회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그룹 공부 신청

- 내용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등
- 대상 : 성경공부가 필요한 모든 청년, 영어권 포함
- 신청 : 아래의 링크에서 등록 또는 본당 사무실에 문의
- 신청 마감 : 2025년 12월 30일
- 링크 : Tinyurl.com/cblmseattle2025

YOUNG ADULT + ADULT  
BIBLE STUDY  
Genesis, Exodus, Mark

영어권  
성서모임

Come join us as we dive into  
the Word of God!  
Schedule to be determined  
after registration.

since 1972 CBM

tinyurl.com/cblmseattle2025



### 8 주차장 안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선을 준수하여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정보고서   | 지난 달 (25년 11월) |          |            |      | 25년 7월 - 현재 (시애틀교구 회계연도) |           |             |      |
|---------|----------------|----------|------------|------|--------------------------|-----------|-------------|------|
| 수입 항목   | 모금액            | 목표액      | 차액         | 달성률  | 누적 금액                    | 목표액       | 차액          | 달성률  |
| 교무금     | \$12,987       | \$25,833 | \$(12,847) | 50%  | \$122,399                | \$310,000 | \$(187,601) | 39%  |
| 주일 헌금   | 6,694          | 13,167   | -6,473     | 51%  | 65,970                   | 158,000   | -92,030     | 42%  |
| 감사 헌금   | 180            | 3,542    | -3,362     | 5%   | 6,511                    | 42,500    | -35,989     | 15%  |
| 기타      | 6              | 4,529    | -4,523     | 0%   | 22,566                   | 54,350    | -31,784     | 42%  |
| 수입 합계   | \$19,867       | \$47,071 | \$(27,204) | 42%  | \$217,446                | \$564,850 | \$(347,404) | 38%  |
| 지출 항목   | 지출액            | 예산       | 차액         | 집행률  | 누적 금액                    | 예산        | 차액          | 집행률  |
| 급여      | \$21,787       | \$16,917 | \$4,871    | 129% | \$88,361                 | \$203,000 | \$(114,639) | 44%  |
| 공공 요금   | 3,648          | 3,250    | 398        | 112% | 16,810                   | 39,000    | -22,190     | 43%  |
| 본당 유지비  | 17,185         | 14,313   | 2,871      | 120% | 61,642                   | 171,761   | -110,119    | 36%  |
| 사목 활동비  | 4,679          | 9,068    | -4,388     | 52%  | 41,435                   | 108,810   | -67,375     | 38%  |
| 교구 납입금  | 0              | 3,523    | -3,523     | 0%   | 42,141                   | 42,279    | -138        | 100% |
| 지출 합계   | \$47,299       | \$47,071 | \$229      | 100% | \$250,388                | \$564,850 | \$(314,462) | 44%  |
| 순이익(손실) | \$ (27,433)    |          |            |      | \$ (32,943)              |           |             |      |

##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이계숙 이석돈 이진순 이두순 전유원 최혜경 이명희 이경자 유주연 신철순 한천혜 노찬규 유미자 이승우 이태경 차태진 강승호 백인표 임대근 정순도 심진수 한춘미 김요셉 조승희 이현기 박철균 소재은 안신자 양대석 홍소영 서진원 신경협 황길수 전명순 신길하 호명규 이종성 조선경 최동조 오세영 이장원 전영신

**[교무금 Push Pay]** 최금희 주성택 황현선 이혜진 유승일 정승범 최영석 이로서 김명준 맹성호 이진열 송승혜 이현주 강봉조 김종대 백승진 이서영 이제용 손윤자 안마슈 **[감사헌금]** 박익전 정순도 이명희 서진원 이정애 박수익 안신자 **[꽃 봉헌]** 민들레 **[성소 후원회비]** 안신자

| 주일 헌금      | 교무금         | 교무금 PUSH PAY | 2차 헌금(Catholic Community Services) | 감사 헌금      | 소피 성당    | 꽃 봉헌     |
|------------|-------------|--------------|------------------------------------|------------|----------|----------|
| \$5,246.00 | \$12,175.00 | \$3,014.08   | \$2,458.00                         | \$1,730.00 | \$175.00 | \$100.00 |



## 교우 비즈니스 광고

|   |   |  |  |
|---|---|--|--|
| <b>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b>                                      | <b>CPA, Cho &amp; Assoc. LLC</b>  | <b>박영진 부동산</b>   | <b>엠마 스킨 케어</b>  |
| 변호사 -Jeremiah Styles<br>케이스 매니저-서원원 마르띠노<br>206-335-3090          |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br>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br>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 고객 평가 1위<br>Windermere Real Estate<br>206-833-7979                           |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br>G마트 2층(린우드)<br>425-525-9955                      |
| <b>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b>                                | <b>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b><br>(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 <b>Pearlshining Photo</b>  | <b>퀀텟 용자/부동산</b>   |
|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br>임정욱 마르세리노<br>206-669-4922                         | 홀리루드 / 겐세마니<br>박요안나 206-434-5670  |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br>반태성(바오로) 206-883-3080<br>Lynnwood H-Mart 내         |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br>대표 토니 장 (안젤로)<br>206-719-3502                         |
| <b>KCR MEDIA GROUP</b>  | <b>24시간 한국방송 &amp;TV</b>  | <b>IRA/401(K)</b>  | <b>김현숙 부동산</b>   |
| 교차로 / 블루북<br>www.wowseattle.com<br>대표번호 425-712-1236              |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br>KBS/MBC/SBS/케이블 방송 등<br>425-777-6667                           | U & T Financial<br>김용근(Glen) 바실리오<br>206-880-1190                            | Windermere Real Estate<br>주택/콘도전문<br>206-375-5959                          |
| <b>황바로 바오로 CPA</b>  | <b>리나 웰니스 클리닉</b>   | <b>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b>  | <b>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b>   |
|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br>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br>info@phcpallc.com | 비만/호르몬 치료<br>비타민 주사<br>206-485-3112(최주연 리나)                                     |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br>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br>425-791-0638/253-778-3974                | 주택 전문 /John L.Scott<br>425-770-1212  |
| <b>동서 한의원</b>   | <b>New York Life</b>  | <b>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b>  | <b>블루밍 치과</b>  |
| 425-773-7979  |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br>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br>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br>22618 Hwy 99 ste. #113 Edmonds<br>425-329-8396 (부한마켓 옆) | 임플란트, 교정, 보철<br>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br>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
| <b>아틀라스 척추 의원원</b><br>14608 Hwy 99 #309 Lynnwood                  | <b>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b><br>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 <b>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b>  | <b>이재호 (베드로 치과)</b>  |
|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br>김진영 요안나<br>425-742-0332                         |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br>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br>19505 44 th Ave. W. Lynnwood     |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br>425-233-8254<br>(Bellevue)                                  |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br>206-362-2500<br>16535 5th Ave. NE Shoreline           |
| <b>정가네 반찬</b>   | <b>황명심 데레사, CPA, CFP</b>  | <b>굿닥터 카이로프랙틱</b>  | <b>그린 리본 프로젝트</b>  |
| 반찬, 케더링 전문<br>206-906-9789<br>206-372-6481                        | 세금보고, 회계업무<br>425-373-0380 / 425-802-7999<br>SabrinaHwang@CPA.com               | 김병성(프란치스코)<br>425-775-7550<br>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br>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br>213-926-7030(Issaquah)                |
| <b>희망미디어(Hope Media)</b>  | <b>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b>   | <b>핸디맨</b>   |  |
|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br>집 253-256-1854<br>Kwom.guhun@gmail.com   | 노인 정신과<br>206-657-4829<br>www.newhaven.care                                     |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br>206-498-8164<br>임화식 레오                         |  |
| <b>웅진 코웨이 USA</b>   | <b>뉴 해남 식당</b>  | <b>Banji</b><br>(Korean Speed Dating)  | <b>시애틀 폴락</b><br>(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
|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br>253-632-0498<br>토마스 조                    | 11:00 AM~9:30 PM<br>매주 목요일 휴무<br>206-367-7843                                   | 425-999-1874<br>김현숙 헬레나<br>banjiseattle@gmail.com                            | 425-534-9255<br>www.seattlepollock.com<br>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

##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       |   |
|-------|---|
| 주일 미사 |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
| 평일 미사 |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
| 성사 안내 | 봉성체 : 화요일 (12/23/25)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2/20/25)                        |

## 제42회 자선 주일 담화

##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마태 12,7)

+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제42회 자선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아 예언자의 말씀을 상기시키시며 ‘자비’를 거듭 강조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마태 12,7).

자선 주일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철저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시며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마태 18,33)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들의 행복을 축원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천상병 시인의 시집 『새』에 “편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점심을 얻어먹고 배부른 내가  
배고팠던 나에게 편지를 쓴다.

옛날에도 더러 있었던 일,  
그다지 섭섭하진 않겠지?

때론 호사로운 적도 없지 않았다.  
그걸 잊지 말아 주기 바란다.

내일을 믿다가  
이십 년!

배부른 내가  
그걸 잊을까 걱정이 되어서

나는  
자네한테 편지를 쓴다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도 있었던 배고팠던 시절이 떠오르십니까? 특히 굶었던 날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마운 사람들이 하나둘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 옛날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마태 25,42).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은 그들이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나누는 것은 우리 인류가 형제자매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은 행복한 인류 가족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약육강식의 짐승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몇 년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인공이 돌고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돌고래를 좋아하였는지는 그만이 알겠지요. 짐작하건데, 돌고래와 인간의 공통점이 약자들을 돌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짐승 세계에서는 약자가 도태되기 마련인데, 돌고래는 그렇지 않아서 장애인이었던 주인공이 돌고래를 좋아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한때 크리스마스 카드에 ‘밥이 됩시다.’ ‘제가 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써서 부쳤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허기진 이들을 위해 ‘밥’이 될 만큼 자기 자신을 내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수룩한 사람을 알잡아 보고 ‘저 사람은 내 밥이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한없이 낮추고 비워 우리 모두에게 ‘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늘도 ‘나는 결코 너의 밥이 될 수 없다.’며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뿐 아니라 타인을 ‘내 밥’으로 삼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

정 인간다운 사회가 되려면 타인에게 밥이 되어 주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지려는 마음도 밥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나눌 것이 없다면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와 약육강식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하늘나라에서 온 편지』 중에서).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으로 우리는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내 밥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를 천사의 세계로 이끕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를 프랑스의 가톨릭 시인 샤를 페기(Charles Peguy)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으로 구원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는 하느님께 도달해야 합니다. 하느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없이 이 사람하고만 하느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조금씩은 이웃을 생각해야 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없이 우리만 하느님께 나아가간다면, 다른 사람 없이 우리 홀로 집을 찾아 들어온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Le Mystère de la charité de Jeanne d'Arc 중에서)

인간은 천사와 짐승의 중간 존재라고 하였던가요? 인간이 짐승의 세계에서 벗어나 천사의 단계로 넘어가는 존재라는 뜻으로 알아듣습니다. 아직 짐승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자신도 때때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비는 이따금 우리에게 천사의 날개를 달아 주기도 합니다. 천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12월 14일  
자선 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의장 조 규 만 주교